

해외업계토픽

보잉사 中國에

1억달러 투자

現地社長임명

장비-기술지원등 제공

美國의 항공기 제작회사인 보잉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항공기시장의 영역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중국담당 사장을 임명하고 장비구입과 교육을 위해 1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아시아인 월 스트리트지가 최근 보도했다.

보잉사의 이같은 계획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유럽의 에어버스社와 미국의 맥도널 더글러스社가 중국 시장에 파고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따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중국담당 사장을 따로 임명했다고 한다.

록히드-마틴 마리에타

합병

추수익 230억달러-17만명

고용전망

미국방산업 퇴조 반영

미국 항공우주산업의 선두주자인 록히드社와 마틴 마리에타社는 8월말 두 기업을 1백억달러 상당의 주식교환을 통해 합병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록히드 마틴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명명된 이 합병기업은 국방, 우주, 에너지, 상업, 민간, 정부, 국제시장에서 연간 2백3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종업원 17만명을 고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합병은 그동안의 많은 합병 거래와는 달리 미국 금융중심가인 월街上에서도 합병소문이 거의 없었다.

美 23위의 군수업체 록히드社와 마틴 마리에타社가 전격 합병을 선언한 것은 미국방산업이 급속도로 퇴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 큰 군수업체들의 합병협상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월街的 분석가들이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합병은 냉전이 끝나고 국방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한 90년대 있었던 것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두 기업은 1백억달러 상당의 주식교환을 통해 합병,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체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의 합병은 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다른 군수업체들에도 큰 자극이 돼 합병과 인원감축을 통한 기업감량을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美 군수산업체

합병-매수 현황

93회계연도 이후 최근 2년간 美國 방위산업체 합병 및 매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록히드-마틴 마리에타 합병 : 1백억달러 (94년 8월)

▲마틴 마리에타, 제너럴 일렉트릭 항공부문 매수 : 30억5천만달러 (93년 4월)

▲노드롭, 그루만 매수 : 21억7천만달러 (94년 5월)

▲록히드, 제너럴 다이내믹스 전

투기 부문 매수 : 15억달러 (93년 2월)

▲로탈, IBM 페더럴 시스템 매수 : 15억달러 (94년 1월)

▲얼라이언트 테크시스템, 허클리스 항공부문 매수 : 4억6천5백만달러 (94년 7월)

▲로탈, LTV 미사일부문 매수 : 2억6천1백만달러 (92년 8월)

▲노드롭-카알라일 그룹, LTV 항공부문 매수 : 2억1천4백만달러 (92년 8월) (이후 노드롭 그룹만이 카알라일 주식 매수 : 1억3천만달러)

▲마틴 마리에타, 제너럴 다이내믹스 항공부문 매수 : 2억8백50만달러 (94년 5월)

臺灣 航空宇宙 特區 조성

외국항공사 하청-합작

형식으로

臺灣은 항공우주산업개발전략의 일환으로 98년까지 航空宇宙特區를 설치, 외국 항공기 제작사들로부터 하청받거나 합작하는 방식으로 단지내에 관련 공장들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대만 경제부 공업국(IDB)이 밝혔다.

공업국은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 맥도널 더글러스(MD)나 보잉, 에어버스 등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한편 예비부품 공동생산을 위해 이들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또 향후 5년내 민영화될 예정인 대만 항공산업개발센터

해외업계토픽

(AIDC)는 군사 및 민수용 항공기와 엔진 생산을 위해 MD 등 미국 항공 3사들과 합작사업에 약 2억6천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항공산업協會 발족 항공업계 10억달러 지원요청 TAA 정부-업계 가교역할 다짐

대만의 36개 항공산업관련 업체들은 지난 8월말 항공산업협회를 발족시키고 정부에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10억달러의 기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부분 엔지니어링 회사인 36개 업체로 구성된 대만항공산업협회(TAIA)는 업계와 정부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반관영인 대만우주항공공사(TAC)의 쥘순(孫)회장이 말했다.

쥘 회장은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공장과 기업의 이같은 협력의 목적은 국제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만이 장기적으로 항공기 보수센터와 부품 메이커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空港건설 각축전 아시아 도시들 2000년까지 모두 개항

새로 문을 여는 일본의 간사이

공항에 이어 서울과 홍콩, 필라립푸르, 방콕 등 아시아 대도시들이 잇따라 새 공항을 건설, '아시아의 관문' 지위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총 투자규모 3백20억달러에 달하는 이들 공항은 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모두 개항한다.

필라립푸르는 97년까지 새 공항을 가동시킬 계획이며 방콕은 제2공항 건설을 계획중이다.

중국 최대의 도시인 上海도 기존 공항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다.

총규모 2백억달러로 간사이공항보다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홍콩 신공항은 97년 완공될 예정이다.

뉴욕, 세계 제일차지 美항공사 승객·화물운송 사상최고 기록

지난 93년은 미국 항공사들에게 승객 및 화물운송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분주했던 한 해였다고美교통부가 발표했다.

美교통부는 93년 한해 동안 항공편으로 미국을 드나든 내외국인 숫자가 전년 대비 5% 증가한 9천2백50여만명이며 이중에서 미국 항공사들이 실어 나른 승객수는 전년보다 1% 늘어난 총인원의 54%에 달한다고 밝혔다.

항공화물 분야에서도 전년대비 10% 증가한 4백70만t의 운송실적을 올렸으며 이중에서美항공사의 화물운송실적 역시 전년대비 1% 성장한 41%를 차지했다.

미국 도시들 중 항공 승객들에게

최고 인기를 끈 곳은 미국의 국제 관문격인 뉴욕으로 1천5백60만명이 몰려들었으며 마이애미와 로스앤젤레스가 각각 1천2백40만명과 1천1백60만명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일반 항공산업 부양법 시행 미, 제작업계 부담경감 20인석이하 적용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소형 항공기 제작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항공산업 부양법에 서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항공기 및 관련 부속품의 제작업계를 결합있는 디자인이나 제작에 따른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즉 법안은 민사소송으로 사실상 폐쇄됐던 일반항공업계를 소생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셈이다.

美 일반항공업계는 지난 78년 국내 및 수출용으로 1만8천대를 생산했으나 지난해는 생산량이 5백55대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10만개의 일자리가 상실됐다.

국가위원회의 강력한 항공산업 경쟁력 권고안을 법제화한 이번 법안은 승객 수용용으로 활용되지 않는 20인석 이하에 한해 적용된다.

해외업계토픽

❖ A340機 구매시기 연기 일ANA사, 최초 주문 5대에

일본 제2의 항공사인 全日空(ANA)은 에어버스社에 주문해 놓은 A340機의 구매시기를 연기할 것이라고 ANA관계자들이 최근 말했다.

ANA는 지난 90년에 에어버스社에 5대의 여객기를 주문했었고 5대를 추가 주문할 예정이었다.

ANA는 이미 주문해 놓은 5대를 96-2000년 사이에 인도받아 일부는 96년부터 취항시킬 계획이었으나 회사재정이 여의치 않아 이같은 구매연기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회사대변인은 밝혔다.

프랑스의 제라르 롱게 산업장관은 A340機 5대의 값은 약 5억5천3백만달러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천7백만달러의 수익을 올린 ANA는 최근 델타항공, 에어캐나다, 영국항공등 경쟁사들과 기술 및 마케팅협력체제의 구축에 나서고 있다.

❖ 착륙료 톤당 24달러 합의 新關西공항 IATA간에

日本の 關西국제공항社(KIAC)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9월 4일 개항하는 신간사이국제공항 착륙료를 항공기 중량 톤당 2천4백엔(약24달러)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확정된 관서공항 착륙료는 현재 세계 최고인 도쿄 나리타

(成田)공항과 같은 수준으로 96년 9월말까지 적용된다.

KIAC는 작년 10월 항공기의 공항이용료안을 처음 마련, IATA에 제시했었으나 IATA측은 이것이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침체상태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항공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보여 왔다.

❖ 日, H-2로켓 두번째 발사 宇宙계획 독립성 확보

일본은 8월 28일 오랫동안 연기됐던 H-2 로켓의 두번째 발사에 성공했다.

H-2로켓은 2톤짜리 통신 위성을 싣고 있으며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2천7백억엔(27억달러)를 들여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18, 19일 두차례나 로켓 발사를 시도했으나 기술 결함으로 실패했는데 이번 발사에 성공, 로켓 발사 능력을 전세계에 확인시킨 셈이 됐다.

그간 로켓 설계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온 일본은 이로써 엄청난 규모의 로켓발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이며 H-2의 독자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주 계획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이날 오후 4시50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 로켓은 한시간 반뒤 정부 소유의 통신 연구 위성 ETS 6을 지상 2백50km의 정지궤도에 진입시켰다.

일본우주개발국(NASDA)은 위

성 ETS 6이 첫번째 우주 레이저 통신을 비롯해 위성간 자료 전달, 멀티빔 안테나를 이용한 정지 및 이동 통신 실험 등 각종 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월 H-2 로켓을 처음으로 발사해 1차적으로 기술적 측면을 시험한 바 있다.

❖ 中國도 발사성공

中國은 8월 28일 四川省의 西昌 위성기지에서 美國 휴스社가 제작한 濠洲의 통신 위성 「澳星B3」를 발사하는데 성공했다고 홍콩의 주요 일간지들이 중국관영 新華통신을 인용, 29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은 파푸아신공에 위치, 濠洲와 뉴질랜드의 각 가정에 전화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약 1억5천만달러의 제작경비가 들었다.

한편 중국은 94년부터 2000년까지 30여개의 외국위성을 발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